

디지털 시대 리더상

한밤 중에 열쇠를 잃어버린 술주정뱅이가 있었다. 그는 가로등 밑을 기다시피하며 몇시간 쯤 열쇠를 찾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열쇠를 가로등 근처에서 잃었느냐고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소”. “그런데 왜 가로등 밑만 찾고 있는 거요?” “그거야 불빛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리더라는 불빛이 가져올 수도 있는 현혹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처럼 이미 조직의 등대가 되어 버린 리더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의 미래를 망치고 말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리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시대적 변화는 오히려 리더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부각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환 위기 이후 리더의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첫째, 고연봉의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뉴브리지 캐피탈(Newbridge Capital)은 제일은행 인수시 호리에를 신임 행장으로 임명하면서 약 34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연봉을 지급하는 대신 리더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뜻이다.

둘째, 디지털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리더의 디지털화도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리더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 500대 기업 중 10위에 오른 고액 연봉자 중에는 정보통신 기업의 CEO가 7명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굴뚝산업시대로 대변되었던 기존의 산업사회에서와는 다른 모습의 리더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주 활동 무대가 인터넷을 통한 가상 세계로 이동됨에 따라 기업의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과 능력도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도록 변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개념이 기존의 리더와 차별되는 특성과 능력을 가진 리더, 즉

디지털 리더이다.

디지털 리더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리더 또는 디지털시대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리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과 자질을 보유한 새로운 리더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디지털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춘 리더를 필요로 하는가?

첫째, 인적 네트워크 능력이다.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와 활발하게 교류해야 할 뿐 아니라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어 이를 이미지화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주가 또는 매출이익률의 상승에 대한 홍보 능력이다. 또한 시민정신의 구현 차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 및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미지를 구축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디지털 감각이다. 기존의 리더 능력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이다. e-메일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 정보 기술에 대한 관심 등을 의미한다. 또한 신세대와의 상호교감을 위해 스타크래프트나 DDR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등도 해당된다.

넷째, 선도하는 능력, 이른바 개척정신이다. 리더들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절박함과 위기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다섯째, 리얼타임력이다. 최근의 경영환경은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은 후에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물론 이와 같은 능력들이 디지털사회 속에서 기업의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기업의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될 것이다.